

1차 고교교육혁신 추진단 부총리 모두 발언(11.20)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혁신은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심각하게 서열화 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둘째, 학생들에게는 수업선택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선생님들에게는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추진과 2025년 전면도입,
마지막으로,

전국 고등학생의 대다수가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확실히 높이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 추진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일반고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추진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전문적인 세 연구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정책 추진의 정교함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챙기는

<고교 교육혁신 추진단>을 통해 추진력을 더하고,
오늘의 회의는 바로 첫 시작의 자리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우리 정부 내에 마련하여
대입 준비와 고등학교 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차 <고교 교육혁신 추진단>에서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준비를 논의한 후
11월 27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준비와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 준비내용에 대해
유관기관의 책임자 분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부모의 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더 나아가
학교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지원해주고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교육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